

로마서 묵상 48
(4/15/2021, 목)

찬양: 312(341)(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1:1-10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며,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고 가르친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바울은 이스라엘이 혈통만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더 나아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며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의식한 듯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1 절)고 말씀했다. 이것은 자기 역시 이스라엘인데,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자기도 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바울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두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바울은 구약성경 왕상 19:10, 18 에 기록된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다(2-5 절). 3-5 절 - 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왕상 19 장에 기록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도 없고 회생가능성도 없다고 여겨지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기도를 포기하면 안된다. 하나님은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

“남은 자”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 혹은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한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

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

아울러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 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원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것이다. 바울은 “남은 자”들이 은혜로 선택 받았으며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한다(5-6 절). 이것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원리를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준수와 행위로 구원받는다든가 어리석은 생각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을 다시 깨우치고 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질타한다. **8-10 절 -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사 29:10, 신 29:4)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덮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시 69:22 이하).**

바울은 구약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음을 드러낸다. 아울러 밥상이 울무와 덮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 달라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한다.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함으로 그대로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며, 등이 항상 굽는다는 표현은 시 69:23 에는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허리가 떨리는 것과 같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것은 믿음이 없이 주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당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유대인들의 문제는, 사실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과 실수에 연루되기도 한다.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둔함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고집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이 가려진 것 같이 분별력을 잃고 헤메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의 조명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며, 보아야 할 것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듣는 영적 성숙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한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영적 타락이 극심해질수록 엘리야 선지자와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나아가야 한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은혜로 선택받은 영적인 “남은 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흥미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3. 코로나 19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 속히 온전히 치유 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